

은혜 안에서 '내려놓기'

로마서 7장 22-24,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내려놓지 못하는 의지 때문에. . .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기”라고 했는데,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세공품을 팔아서 꽤 재산을 모은 한 스코틀랜드 출신 여인이 있었다. 매일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다 사거리에 이르면 길가에 있는 나무토막을 공중으로 던져서 그 나무토막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한번은 그녀가 공중을 향해 어느 때처럼 나무토막을 던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한 노파가 서 있었다. 공중을 향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가 이 여인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나무토막을 공중에 던지고 있소?”

“전 이 나무토막을 던져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나무토막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왜 세 번씩이나 던졌소?”

궁금한 나머지 노파가 물었다.

“네, 처음 두 번은 글쎄,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나무토막이 가리키지 뭐예요.”라고 이 여인이 대답했다.

‘집착’은 ‘내려놓지 못함’과 동의어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죄에도 스스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2-24,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지금 사도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인간 본성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통제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가 쓴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느 유럽의 수도원에 방문자가 왔습니다. 수도사는 방문자에게 방을 내주면서 한 가지 금기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창밖을 내다보지 말라’였습니다. 이 금기만 지키면 방에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방문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을까요, 수도사의 지시대로 절대 내다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당연히 방문자는 창밖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방에는 그 사람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창밖을 내다봤고,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모든 수도사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똑같은 금기를 전달받았으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금기를 깼습니다. 수도원은 방문자들에게 왜 이런 금기를 말해 준 것일까요? 인간은 단 한 가지 규칙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단 한 가지 금기를 깨뜨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이 절망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지만,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 이유와 기쁨을 로마서 8장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려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갑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거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수퍼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유함과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처참하게 깨뜨리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 앞에서 무기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좌절감이 우리를 감싸 안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비참한 패배감을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해지려는 마음’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절규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을 사도바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처절한 사도바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죄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며 곤고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으로 무엇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깨어짐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나를 지탱해 줄 균원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바닥에서 비로소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올라가 수 있는 힘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 .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동기는 옳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의 이야기가 이런 잘못된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두 수도자가 어떤 개울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개울가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건네주기를 바라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한 수도자는 여인을 못 본채하고 개울을 건너가 버렸고 다른 수도자는 여인에게 등을 들이밀며 말했다.

“업히지요. 건네 드리겠습니다.”하고는 여인을 업고 시내 저쪽에 내려 주었다.

두 수도자는 길을 재촉했는데 좀 전에 여인을 업지 않았던 수도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수도하는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인은 업었던 수도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다른 수도자는 더욱 화가 나서 동료 수도사를 나무랐다.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계율임을 잊었는가?”

그 수도자는 계속해서 질책을 퍼부었다.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계속하여 질책하는 다른 수도자를 향하여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나는 벌써 두어 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군 그래"
그 말을 들을 동료 수도자는 자신의 생각이 얕았음을 알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그 죄가 이겨집니까?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0월 거의 한 달을 제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해외에 다녀와서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몸이 노화되기 때문에 세포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심각했던 것은, 며칠을 잠을 못자다 보니까 저에게 자꾸 강박관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도 누워서 잠을 못자면 어떻하나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잠자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누우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납니다.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 보면 또 피곤해지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잠자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워서 잠자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 라인상에서 제 설교를 듣다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잠을 잘 오게 하는 줄 몰랐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 특히 죄를 이기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게 만들고 그 죄의 '잔상'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옳아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쩌면 '내려놓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죄책감에 빠져서 해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화롭게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바꾸어보고 싶은 강한 열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망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8장 2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괴로움을 유발하는 방식을 “율법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다가 길이 막히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좌절하는 모습을 모시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죠.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참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인데 읽어 보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좌절의 끝에는 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로 이끌어가지만 거기에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스림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가 부러져 접골원에 갔

다가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던 때. . . .)

우리 아들 데이비드가 세 살 이었을 때다. 한 밤중에 아들 방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뛰어 들어 갔다. 아내와 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아내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 남아 있기도 하고, 나는 얼른 데이비드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원인을 일러 주었다.

“아드님은 지금 노폐물 때문에 장이 막혔습니다. 방광과 대장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기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우선 도뇨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륨으로 관장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졌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결국 데이비드를 진찰대에 뉘었다. 도뇨관을 삽입하려는데 데이비드가 바둥거리자, 의사가 “아드님 좀 꽉 눌러 주세요”하고 지시했다. 나는 몸을 숙여 오른팔로는 아들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팔로는 오른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빠, 저 사람 좀 말리세요! 제발!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만!”

데이비드는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어느 순간, 마치 가사 상태에 빠진 듯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장면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울음을 그친 데이비드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러고는 두 려움과 혼돈의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다.

“아빠, 어째서 저 사람이 그만두게 하지 않으세요?”

세 살짜리 어린애한테 도뇨관이 뭔지 어떻게 설명하랴, 그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진찰대 가까이 최대한 몸을 숙여 아들을 꼭 안아 주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같이 있잖니. 아빠를 믿으렴. 너에게 필요해서 하는 일이란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끝날 때까지 아빠가 꼭 붙잡아 줄게.”

그래요.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제발이지 저것 좀 멈춰주세요!”라고 소리 쳤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라고 항변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늘 신장에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다면 오색찬란한 ‘사리’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에 8번이나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하고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가기도 했습

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결혼 주례가 있어서 남의 잔치에 실수 할까봐 기다리지 못하고 초음파로 결석을 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야 하는 순간들 이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방법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그를 벼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의 실수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놀음도 끊고, 취미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봉사합니다.

주차봉사도, 교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 봅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지고 벼겁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스스로 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구제불능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에 미쳐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 일에 미쳐서 사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이제 교회에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걸모양은 바뀌었지만 진정한 은혜와 사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참다운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노력들은 더욱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아주 분명한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양을 치며 한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팡이 뱀이 되어 벼렸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사명자가 되어 나갈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팡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동일한 지팡이를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해도,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패배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없이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원리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도바울이 그의 노력으로 곤고함을 고백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내려놓으면 어디에서부터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 이슬처럼 젖어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Ven Espiritu Ven

Marco Barrientos 사, Luis Barrientos 곡

